

「영동군 청년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

심사 총평

본 공모전에 참가해주신 82개 팀에 감사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본 공모의 심사 지향점에 대한 논의를 거쳐 공감대를 만들고, 이 공감의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래쪽과 위쪽의 도로에 대한 연결 방법, 주차계획 중 주차장의 위치, 외부 공간의 적극적 계획, 내·외부공간의 연속성에 대한 관점을 정립하여 심사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과도한 외관 디자인과 공간과 관계되지 않은 외피의 형식을 강조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기준을 세웠습니다.

외부공간 계획도 건축가의 의도가 작용하여 이용자들의 행위를 유도하는 계획이 바람직하다고 기준을 세웠습니다.

제출 작품들은 수준이 매우 우수하였으며 그의 노력이 충분히 심사위원 들께 전달되었습니다. 제출한 건축가들의 노고에 머리가 숙여집니다.

이번 공모의 심사를 통해 서로 경쟁했지만 심사위원과 참여자 모두에게 위로와 성장의 과정이 되었기를 기원합니다.

2024. 05. 23.

심사위원장 오신욱

<당선작> 레오건축사사무소(최성준) / (주)보리건축사사무소(김정진)



오신욱 배치와 내·외부공간구성이 탁월한 안 이었습니다. 특히 1층의 평면구성은 건축물의 완성 후, 이용자들의 행위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위쪽 도로에서 보행자의 진입에 대한 적극적 보완이 이루어지면 좋을 듯합니다. 가로에서의 건축물의 이미지(view)가 지역의 맥락과 지역정서에 부담스럽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의 끈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호섭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에서 앞으로 지어질 청년보금자리주택까지 고려한 내·외부공간의 확장성이 조화로운 안이었습니다.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으로 둘러싸인 중정공간은 입체적으로 구성되고 작동되며 청년센터의 새로운 활력으로 다가오리라 기대됩니다. 전체적인 부지조성이 보금자리 주택과 더불어 맞춰질 때 '영동군 청년센터'가 지니고 있는 많은 가능성들이 좋은 결과물로 영동군에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박수정 평면구성이 합리적이고 중정을 통한 외부공간의 활용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층의 볼륨에도 2층의 볼륨이 주변의 컨텍스트의 크기와 차이가 있는 점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정이삭 크고 작은 다양한 규모의 외부공간이 연역적으로 구성된 계획안. 과시적이지 않고 낮고 분절된 매스의 그것들이 형성하는 내외부의 풍부한 경험적 공간이 우수하다고 생각. 10m, 12m 도로 사이의 연결과 진입의 방식이 명료하면서도 이 주변과 어울림.

최정인 주변 맥락을 고려한 배치 구성이 우수하며 청년보금자리주택으로 연계 및 확장성을 고려함이 우수함.

사용자의 이용 특성을 고려해서 영역별 조닝을 효율적으로 분리하고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해서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고려한 평면 계획임.

12m 도로에서 시작되는 진입동선이 내부 중정 마당으로 연계되고 지역성을 고려한 스케일감이 우수함.

<2위> **오유알 건축사사무소(장문석)**



오신욱

이 작품은 마당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의 다양한 이벤트가 실현 가능하게 인식되었고, 이는 이 작품의 큰 매력이었습니다. 다만 주차장의 배치와 2차 사업지의 연계, 대비에 대한 아쉬움이 보였습니다.
볼륨의 변화나 결합, 외벽 재료의 선택은 매우 우수합니다.

신호섭

적당하고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영동군 청년센터가 지향해야 할 목표점을 매우 우수한 디자인적 해결 능력으로 도달했습니다. 내·외부 공간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유연한 공간적 성격을 강화시켜주는 여러 건축적 장치들을 통해 거점시설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해냅니다.
끝까지 고민하게 만든 수작이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박수정

주변 컨텍스트와의 조화로운 볼륨 구성이 인상적입니다. 평면의 구성이 간결하고 완성도가 있습니다.
다만 주거단지가 들어서면서 구성되는 마당에 변수가 있을 수 있는 점이 프로젝트 전체의 퀄리티보다 상위에서 고려되어 아쉽게 생각합니다.

정이삭

전체적인 매스감과 조형이 주변과 조화된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작업.
ㄱ자로 감싼 마당의 감성과 쓰임의 예상 또한 탁월하다고 판단하였음.
주차장 조성/배치의 현실성이 부족.

최정인

지역적 스카이라인과 주변 환경을 고려한 매스의 분절과 공간의 구성력이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음.
라운지가 내부 공간의 구심적 역할을 하며 외부공간과 연계 및 확장성이 우수함.

<3위> 화이트그라운드 건축사사무소(방용민)



오신욱

본 작품은 배치가 탁월하고 아래쪽 위쪽의 도로를 연결하는 계획이 매우 우수합니다. 단순하면서도 변화가 보이는 볼륨의 형상은 매력적인 장면을 만들고, 영동 지역에 최적화된 안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레벨의 테라스는 더욱 감성적 공간으로 작동하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1층의 평면계획이 탁월합니다.

신호섭

가로형으로 풀어 낸 대안 중에 아주 우수한 안이었습니다. 프로그램들은 가로를 따라 적절히 분산되고, 또 동시에 연결됩니다. 강력한 대안으로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수정

평면구성이 합리적입니다. 가로를 중요한 컨셉으로 가져간 점이 인상적입니다. 다만 청년센터만의 외부공간이나 마당이 독립적으로 형성되기 어려운 점이 아쉬웠습니다.

정이사

10-12m 도로의 연결과 그것에서 분기한 청년주택 방향의 가로 형성이 탁월함. 저층부의 가로가 가장 훌륭했던 계획안임.

최정인

12m 도로와 10m도로를 연결하는 청년가의 개념이 우수하고 청년가와 맞닿아 있는 라운지와 내부 공간들의 연계와 활용이 특색있는 공간을 만들어 줌.

<4위> (주)건축사사무소 적재(정재원)



오신욱

배치의 방법이 인상적인 작품입니다. 대지의 해석에 대한 관점에 궁금증을 자아내고, 보행자의 시선에서 건축과 외부공간이 만들어내는 시퀀스는 매우 매력적입니다. 간결하면서도 경사지붕의 적용 디자인은 디자인의 가치를 느끼게 해줍니다.

신호섭

강력한 기하학적 축을 도시의 축과 대비시키며 아름답게 제안해 주었습니다. 앞 공간의 진입광장과 회랑을 넘어서 안쪽의 마당까지 영역은 명확하나 경계의 넘나들은 자유롭습니다.

박수정

내·외부와의 조화가 인상적입니다. 특히 1층에 많은 프로그램을 배치하고 외부공간을 다양하게 구성한 점과 볼륨이 주변 컨텍스트와 조화롭게 어울리는 점도 훌륭한 안입니다.

정이삭

매스의 분절과 조화성, 스케일이 탁월했다고 판단. 크고 작은 덩어리와 외부공간의 균형이 탁월. 다만 +자 축으로 계획한 보행의 축을 너무 과도하게 집착한 것 아닌지 생각됨. 사용 불가(진입 등)라고 질의응답한 필지의 사용이 부적절함.

최정인

12m 도로와 4m 도로로 연결되는 가로 축이 명쾌하며 진입 마당인 마을 광장과 중심 마당으로 연결되는 외부 공간의 구성력이 우수함. 청년 보금자리 주택과의 연계가 우수함. 중심 마당에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며 공간의 안정감이 느껴짐.

<5위> 필동2가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조경빈)



오신욱

'T'자형 배치에 대한 매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건축 볼륨에 의한 분할된 외부 공간도 묘한 매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적재된 외관과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외벽 재료는 공모전에서 보기도문 건축가의 의지가 보이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신호섭

가장 아름다운 입면과 단순하지만 매우 풍성한 관계를 일으켜주는 공간적 구성을 가졌습니다. 압축적이지만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활성화시켜주는 구축적 영민함이 돋보이는 제안이었습니다.

박수정

명료한 평면구성 안이며, 볼륨인 mass 덩어리를 적절하게 디자인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다만 외부공간과의 연계나 독립적이고 위요감 있는 공간구성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이삭

단순한 형태와 간결하고 담백한 아름다움이 있으면서도 풍부한 내부 공간계획이 적절. 10-12m 도로간 연결이 긍정적이거나 12m 측 진입구가 길보다는 입구처럼 인식되어 아쉬움.

최정인

이형적인 대지를 T자형의 매스로 적절히 분절하여 다양한 외부공간을 형성하여 다양한 형태로 사용 가능하도록 함.
